

미국의 하이테크제품(ATP) 수입동향 및 우리에의 시사점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하이테크제품의 수입비중은 점차 상승하여 지난해 총수입의 17.7%를 차지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비록 동 기간에 미국 ATP 수입시장에서의 비중이 감소(1.4%p 감소)하였지만, 국가별 순위에서는 2005년 6위에서 2013년 5위로 상승하였다. 또한, 하드웨어 기술이 요구되는 정보통신, 전자제품, 자동화시스템 등 7개 분야에서는 10위권 이내의 순위(2013년 기준)를 기록하였다. 반면, 미국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생명공학, 생명과학,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2%미만)으로, 기초연구 축적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1 미국의 하이테크제품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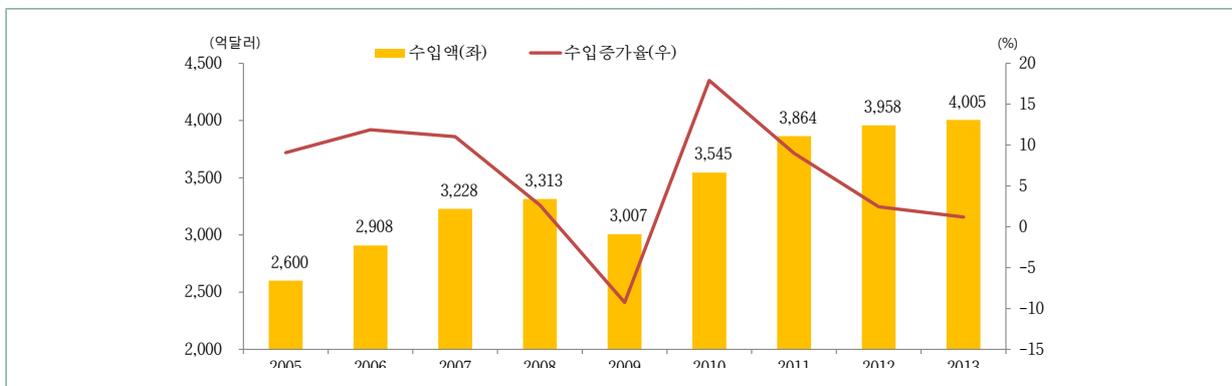
□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하이테크제품¹⁾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 4,005억 달러를 기록

○ 2005~2013년 중 하이테크제품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5.9%로 전체 수입증가율 4.9%를 상회하였으며 총수입에서 하이테크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7.7%로 상승 추세

* 美 하이테크제품 수입 증가율(전년비,%) : 9.1('05) → 11.0('07) → -9.3('09) → 9.0('11) → 1.2('13)

* 美 하이테크제품의 총수입 대비 비중(%) : 15.6('05)→16.5('07)→19.3('09)→ 17.5('11)→17.7('13)

미국의 하이테크제품 수입동향



주 : 미 센서스국 ATP 무역코드를 이용하여 무역협회가 자체 집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미국 센서스국(Census Bureau)에서 발표하는 하이테크제품(ATP, Advanced Technology Product) 무역통계를 기초로 작성. 세부품목으로는 생명공학, 생명과학, 광학기기, 정보통신, 전자제품, 자동화설비, 신소재, 우주항공, 무기류, 핵기술 등 10개 품목으로 구성됨

2 분야별 수입동향

- 하이테크 주요 10개 분야 중에서는 정보통신, 우주항공, 생명과학의 수입규모가 큰 편이며, 정보통신, 우주항공, 광학기기, 생명공학, 무기류는 수입 증가세가 전체 평균을 상회
- 수입액비중(2013년) : 정보통신(55.8%) > 우주항공(11.2%) > 생명과학(10.9%) > 전자제품(9.0%) > 광학기기(5.7%)
- 수입증가율('05~'13년) : 생명공학(21.4%) > 광학기기(12.7%) > 우주항공(7.3%) > 무기류(6.1%) > 정보통신(6.0%) > 자동화시스템(5.3%)

미국의 하이테크제품 분야별 수입동향

(억 달러, %)

품목명	2005년	2010년	2013년	연평균증가율('05~'13년)
정보통신	1,472 (56.6)	2,051 (57.9)	2,236 (55.8)	6.0
우주항공	255 (9.8)	293 (8.3)	447 (11.2)	7.3
생명과학	304 (11.7)	418 (11.8)	435 (10.9)	3.2
전자제품	266 (10.2)	278 (7.8)	360 (9.0)	3.0
광학기기	122 (4.7)	259 (7.3)	229 (5.7)	12.7
자동화시스템	89 (3.4)	93 (2.6)	121 (3.0)	5.3
생명공학	42 (1.6)	76 (2.1)	112 (2.8)	21.4
핵기술	25 (1.0)	47 (1.3)	34 (0.9)	5.3
신소재	18 (0.7)	20 (0.6)	22 (0.5)	2.2
무기류	6 (0.2)	10 (0.3)	9 (0.2)	6.1
하이테크제품 계	2,600 (100.0)	3,545 (100.0)	4,005 (100.0)	5.9

- 주 : 1) 미 센서국 ATP 무역코드를 이용하여 무역협회가 자체 집계
 2) ()는 미국의 전체 하이테크제품 수입 대비 비중
 3) 생명과학 : 지진계, MRI 등
 4) 자동화시스템 : 산업용로봇, 레이저디스크, 온도조절장치 등
 5) 생명공학 : 약, 성장호르몬 등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주요 수입국 비교²⁾

- 국가별 수입액 순위(2013년)는 중국, 멕시코, 일본, 아일랜드, 한국 순으로 한국은 2005년 6위에서 2013년 5위로 한 단계 상승

* 한국 순위 : 6('05)→7('06)→6('07)→6('08)→4('09)→5('10)→6('11)→7('12)→5('13)

* 일본 순위 : 2('05)→3('06)→ 3('07)→3('08)→3('09)→3('10)→3('11)→3('12)→3('13)

- 10대 수입국 중 중국, 멕시코만 수입비중이 상승했으며, 여타 8개국은 모두 하락

2) 2013년 기준 미국 총수입 상위 15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 비중('05→'13년, %) : 중국(22.8→36.4) 멕시코(9.2→11.9) 일본(9.5→5.8)
아이랜드 (5.4→4.6) 한국(5.4→4.0)
- 중국의 1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멕시코, 아일랜드, 한국, 독일은 순위가 상승한 반면, 일본, 캐나다는 순위가 하락
 - 중국의 하이테크 제품 조립기지 역할 확대와 자체 기술수준 제고의 영향으로 미국의 對中 하이테크 수입비중이 크게 상승 ('05년 22.8% → '13년 36.4%)
- * 순위 상승('05→'13년) : 3→2위(멕시코), 5→4위(아일랜드), 6→5위(한국), 8→6위(독일)
- * 순위 하락('05→'13년) : 2→3위(일본), 4→8위(캐나다)

미국의 하이테크제품 주요 국가별 순위 및 수입 현황

(억달러, %)

국가	국가별순위		2005년	2010년	2013년
	2005년	2013년			
중국	1	1	593(22.8)	1,157(32.6)	1,459(36.4)
멕시코	3	2	240(9.2)	487(13.8)	477(11.9)
일본	2	3	246(9.5)	233(6.6)	234(5.8)
아일랜드	5	4	140(5.4)	175(4.9)	185(4.6)
한국	6	5	140(5.4)	174(4.9)	159(4.0)
독일	8	6	110(4.2)	101(2.9)	150(3.7)
대만	7	7	123(4.7)	154(4.4)	145(3.6)
캐나다	4	8	158(6.1)	128(3.6)	142(3.5)
프랑스	9	9	85(3.3)	106(3.0)	127(3.2)
영국	10	10	73(2.8)	95(2.7)	87(2.2)
10개국 합계			1,908(73.4)	2,810(79.3)	3,165(79.0)
하이테크제품 계			2,600(100.0)	3,545(100.0)	4,005(100.0)

주 : ()는 전체 하이테크제품 수입 중에서의 국가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국가별 수입동향

- (한국) 2013년 중 정보통신, 전자제품을 포함한 7개 분야가 10위 이내의 순위를 기록했으나 생명공학, 생명과학 등 3개 분야는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음
 - * 분야별 순위 :
정보통신(3위), 전자제품(3위), 자동화시스템(4위), 신소재(6위), 광학기기(6위), 핵기술(7위), 우주항공(10위), 무기류(11위), 생명과학(12위), 생명공학(13위)
 - 지난 2005년 대비 한국의 수입비중이 상승한 분야는 생명과학, 자동화시스템, 우주항공 등 4개 분야로, 이 중 자동화시스템의 수입비중 상승이 두드러졌음
 - 수입비중이 하락 추세인 6개 분야 중 광학기기는 2010년부터 대만, 독일에 뒤지기 시작했으며, 신소재는 2010년부터 중국에 열세로 전환
 - 다만 정보통신은 중국의 영향으로 수입비중은 감소했으나 2010년부터 일본을 추월

* 지난해 정보통신 및 전자제품은 스마트폰과 메모리칩,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각각 3위를 기록

* 한국의 對美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전년비, %) : -26.5('05)→24.6('07)→0.9('09)→1.0('11)→32.3 ('13)

○ (중국) 2013년 기준, 정보통신 및 전자제품이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생명공학, 우주항공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위 5위 수입국에 진입

○ (일본) 지난해 자동화시스템, 신소재 2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분야도 수입비중이 상승. 반면 생명과학, 광학기기, 정보통신 등 분야의 비중은 하락

미국 하이테크제품의 주요 품목별/국가별 수입 현황

(백만 달러, %)

구분	순위	국가	2005년 수입	2010년 수입	2013년 수입	구분	순위	국가	2005년 수입	2010년 수입	2013년 수입
생명공학	3	독일	1,156(27.4)	426(5.6)	1,124(10.0)	자동화시스템	1	일본	3,766(42.3)	3,650(39.4)	4,436(36.6)
	6	일본	37(0.9)	138(1.8)	385(3.4)		2	독일	949(10.7)	824(8.9)	1,200(9.9)
	9	중국	39(0.9)	59(0.8)	77(0.7)		3	중국	301(3.4)	664(7.2)	951(7.9)
	12	대만	1(0.0)	5(0.1)	11(0.1)		4	한국	257(2.9)	389(4.2)	733(6.1)
	13	한국	3(0.1)	3(0.0)	3(0.0)		7	대만	242(2.7)	199(2.1)	446(3.7)
		전체	4,219(100.0)	7,610(100.0)	11,232(100.0)			전체	8,897(100.0)	9,258(100.0)	12,113(100.0)
생명과학	2	독일	3,380(11.1)	3,508(8.4)	4,196(9.6)	신소재	1	일본	846(46.9)	837(41.9)	652(29.9)
	5	중국	392(1.3)	1,500(3.6)	2,040(4.7)		3	중국	82(4.5)	166(8.3)	243(11.1)
	7	일본	2,159(7.1)	2,227(5.3)	1,737(4.0)		4	독일	182(10.1)	145(7.3)	156(7.1)
	12	한국	101(0.3)	197(0.5)	226(0.5)		5	대만	47(2.6)	70(3.5)	145(6.7)
	13	대만	74(0.2)	145(0.3)	213(0.5)		6	한국	117(6.5)	120(6.0)	126(5.8)
		전체	30,390(100.0)	41,849(100.0)	43,484(100.0)			전체	1,804(100.0)	1,997(100.0)	2,185(100.0)
광학기기	2	중국	2,743(22.5)	7,552(29.1)	5,281(23.1)	우주항공	3	일본	1,685(6.6)	2,989(10.2)	5,544(12.4)
	3	일본	1,626(13.4)	1,094(4.2)	966(4.2)		4	독일	2,835(11.1)	2,150(7.3)	4,679(10.5)
	4	대만	356(2.9)	332(1.3)	661(2.9)		9	중국	169(0.7)	506(1.7)	789(1.8)
	5	독일	300(2.5)	462(1.8)	556(2.4)		10	한국	354(1.4)	480(1.6)	664(1.5)
	6	한국	420(3.4)	93(0.4)	224(1.0)		11	대만	92(0.4)	180(0.6)	269(0.6)
		전체	12,174(100.0)	25,936(100.0)	22,906(100.0)			전체	25,528(100.0)	29,263(100.0)	44,667(100.0)
정보통신	1	중국	53,484(36.3)	102,292(49.9)	132,819(59.4)	전자제품	1	대만	3,853(14.5)	3,590(12.9)	3,941(11.0)
	3	한국	9,551(6.5)	13,085(6.4)	10,724(4.8)		2	중국	1,908(7.2)	2,772(10.0)	3,379(9.4)
	4	대만	7,588(5.2)	10,884(5.3)	8,735(3.9)		3	한국	3,167(11.9)	3,035(10.9)	3,191(8.9)
	5	일본	11,819(8.0)	9,374(4.6)	6,992(3.1)		4	일본	2,588(9.7)	2,861(10.3)	2,542(7.1)
	7	독일	1,076(0.7)	1,284(0.6)	1,709(0.8)		7	독일	797(3.0)	676(2.4)	743(2.1)
		전체	147,189(100.0)	205,080(100.0)	223,587(100.0)			전체	26,594(100.0)	27,771(100.0)	35,956(100.0)
무기류	1	중국	63(9.7)	161(16.1)	163(17.8)	핵기술	2	독일	244(9.7)	481(10.3)	475(13.8)
	2	독일	116(17.9)	160(16.0)	132(14.3)		3	중국	73(2.9)	1(0.0)	140(4.1)
	6	대만	22(3.4)	36(3.6)	39(4.2)		4	일본	55(2.2)	90(1.9)	95(2.8)
	8	일본	10(1.6)	13(1.3)	8(0.9)		7	한국	0(0.0)	30(0.6)	27(0.8)
	11	한국	8(1.3)	4(0.4)	3(0.3)		12	대만	0(0.0)	0(0.0)	0(0.0)
		전체	648(100.0)	997(100.0)	918(100.0)			전체	2,511(100.0)	4,690(100.0)	3,441(100.0)

주 : ()내는 구성비(%), 순위는 2013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의 對美 하이테크 수출 明暗

明	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수입시장 내 순위 한 단계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6위 → '13년 5위 ■ 하드웨어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서 경쟁력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 전자제품, 자동화시스템은 수출호조 - 특히, 자동화시스템의 수입비중 상승이 두드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수입시장 내 비중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 5.4% → '13년 4.0% ■ 생명공학, 생명과학, 우주항공 점유율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구 및 핵심기술의 부족에 기인

- 2005~2013년 기간 중 미국의 하이테크제품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5.9%인 가운데, 수입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총수입의 17.7%를 차지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짐
- 한편, 한국은 미국 하이테크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5.4%에서 2013년 4.0%로 1.4%p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2005년 6위에서 2013년 5위로 한 단계 상승
- 한국은 하이테크 중 하드웨어 기술이 필요한 광학기기, 정보통신, 전자제품, 자동화시스템, 신소재 분야는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초연구 축적과 핵심기술 확보가 쉽지 않은 생명공학, 생명과학, 우주항공 분야는 점유율이 2%미만에 그치고 있어 미흡한 수준
- 최근 미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생명공학, 생명과학, 정보통신, 우주항공 등 분야에 대한 경쟁력 유지 및 제고 노력이 필요
-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 유지와 더불어 우주항공 분야의 제조기술 확보 노력 및 생명공학, 생명과학에 대한 기초투자 및 전문인력 확대 필요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강내영 연구원 (6000-5259, nykang87@kita.net)
 심혜정 연구원 (6000-5159, hshim@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07년 3월 12일 무역연구소를 확대 개편하여 국제무역연구원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며 한국무역의 미래전략 제시, 심층적인 무역연구, 각종 정보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무역이 국가경쟁력의 표상인 점을 감안하여 무역진흥의 목표 하에 무역정책 및 전략 개발, 수출입 동향 분석 및 전망, 해외시장 정보제공, 다자간 협상동향 및 FTA 추진전략 개발,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BRICs 및 신흥시장 진출 전략 연구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향분석실, 기업경쟁력실, 통상연구실, 미래무역연구실, 전략시장연구실 등 5실로 구성되어 있는 국제무역연구원은 각종 연구보고서와 다양한 무역자료를 웹사이트(<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동향분석실

- 수출입, 환율 및 원자재 동향 분석 및 전망
- 수출경쟁력 연구,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 무역의 구조변화 전망 및 정책제안
- 무역자료실 운영
- 무역연감, International TRADE 발간

■ 기업경쟁력실

- 인력교육 및 공급체계, 기업환경 개선 연구
- 무역지원제도의 평가 및 대안제시
- 신성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연구
- 중소기업 무역정책방향 연구

■ 통상연구실

- 우리나라 FTA 추진전략 및 FTA 효과 실증 연구
- DDA, 보호무역주의 등 주요 통상 현안 연구
- 아시아 경제통합 대비 통상전략 수립
-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 FTA를 활용한 유망 신흥시장(중남미, 아세안 등) 진출전략 연구

■ 미래무역연구실

- 한국 무역의 확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제 발굴 및 연구
- 한국 무역의 소프트파워 강화 방안 연구
-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연구
- 차세대 수출모델 연구

■ 전략시장연구실

- BRICs 진출전략의 체계적 수립
- 전략시장 마케팅정보 제공을 통한 진출기회 확대 연구
- BRICs INSIDE 발간
- BRICs 및 신흥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